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고향의 추석 달

詩가 있는 한가위 풍경

김태준

중국대 교수 · 국문학

한가위는 설날과 함께 한민족의 가장 즐거운 명절이며, 햇열매와 가을 달로 한 해 가운데 가장 시가 아름다운 풍경의 명절이기도 하다. 이런 뜻에서 시가 있는 한가위 풍경을 살펴보면, 조선 시대의 가사「농가월령가」의 8월령이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팔월이라 중추되니 백로 · 추분 절기로다.
북두성 자루 돌아 서편을 가리키니
선선한 조석기운 秋意가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 간에 듣거구나
:
나무꾼 돌아올제 머루 다래 山果로다
뒷동산 밤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북두성 자루가 서편을 가리키고 머루 다래를 꽃은 나무꾼의 나뭇짐이며 뒷동산 밤대추를 즐기는 가을 풍경은 병풍 그림으로도 손색이 없는 시편이다. 특히 버거운 나뭇짐에 머루 다래를 꽃아 엮은 나무꾼의 여유며 뒷동산에서 햇과일을 즐기는 ‘아이들세상’은 한가위 풍경으로도 빼어난 시상이다.

‘한가위’나 ‘추석’의 뜻이 벌써 달의 이미지를 더붙고 있지만, 추석달은 단연 이 계절을 노래한 시들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한가위는 달의 명절이며, 달은 이 명절을 맞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추석날에 달이 없으면 토끼나 올챙이가 태를 배지 못하고, 이듬해 보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였다(松南報識 歲詩類). “보는 아가씨 추석에 운다”는 속담도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같은 보름달이라도 한가위달은 정월 대보름처럼 차고 엄숙한 달이 아니다. 정답고 이야기하고 싶은 달이라고나 할까. 그러기에 한가위 달을 노래한 시구들은 한결같이 달과 대화하는 정겨움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의 달구경은 東樓 아래서
버들 숲 사이로 금물결 출렁이더니
금년의 달구경은 서루 위에서
엷은 구름이 달빛을 희롱하여 넘실거리누나.
:
어지러운 세간에 영육이 많은데
희어진 내 머리 어이 다시 검게 되리.
:
내 지금 안 마시면 달이 응당 웃으시리.



달이며, 잠깐 머무소서. 내 한번 휘파람 불리……
(李穡, 중추에 상당루에서 달을 구경하며, 원한시)

혹은 달 아래서 안 마시면 내야말로 천치리나……. 이렇게 노래하는 고려의 시인은 달을 불려 그를 위해 휘파람을 불겠다고 흥겨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위 달은 또한 고향달이라야 제격이다. 그래서 요사이도 사람들은 고향달을 찾아 민족의 대이동을 이루지 않는가? 정몽주가 ‘갑진년 한가위에 회포가 있어 (甲辰中秋有懷)’ 읊은 한시도 고향을 버린 자의 달노래이다.

추석이라 오늘 밤 작년의 달은 떴건만
지난해 나그네는 아직도 못돌아갔네
뜰에 쓸쓸히 귀뚜라미는 울고
부엌은 처량하여 童僕들도 주렸으리라.
어제 아침 아우의 편지 받아보니
백발 어머니 날 몹시 보고 싶어 하시매
“부귀 공명은 네 할 일 아니다
해마다 객지에 있으니 언제나
돌아오려느냐.”
:
명년은 또 어디서 밝은달 만나게 되려나
홀로 남쪽 창에 기대어 시나 읊고 있는 나.

밝은 달을 보면서 눈물 흘림은 달과 함께

고향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고향은 내가 생명을 받은 고장이요, 날 낳으신 어머님이 나를 기다리는 곳이다. 나처럼 북쪽의 어머니를 떠나 수십년 유랑하는 떠돌이에게는 더구나 한가위 고향달이 어머님 달로 느껴진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실향민들이 이 한가위에 고향달과 고향의 어머니를 그럴 것인가. 이렇게 한가위를 달과 대화하며 고향달로 그린 시로는 또한 鄭道傳이 會津에 귀양가서 쓴 「中秋歌」가 있다. “지난해는 추석달을 구경하며 옥병 아름다운 술에 시백편을 지었더니 / 올해는 멀리 회진에 귀양와서 초가집 거친 산 앞에서 달을 보며 더욱 서글프다”고 그는 노래했었다.

가을 달 밝은 고향 풍경은 한가위의 명절 풍속 두레 풍속과 함께 어울리게 마련이다. 「농가월령가」의 8월령은 이렇게 이어진다.

장구경도 하려니와 흥정할 것 잊지 마소.

북어래 짓조기를 추석명절 쇠야 보새
新稱酒 오려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에 제물하고 이웃집 난화먹새.

한가위 명절을 준비하는 시장 풍경은 바쁘고 풍성하다. 햅쌀로 빚은 송과 오려송편에 토란국은 선산에 올리고 이웃집에 나누어 먹었다. ‘웃은 시집을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이란 속담이 있지만, 음식이 풍족하기로는 추석명절을 당할 수 없다.

이런 풍요와 넉넉함이 추수 감사의 제사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이었다. 趙秀三의 한시 「두레놀이(祭神)」는 이런 풍경을 노래한 시이다.

농악 소리 두리둥둥 평년을 노래하며
누런 닭고기 맑은 술에 온 동리가
즐거워라
소잡아 늦그릇에 괴었으니 신이여
흠향하시라
풍년을 마련한 공을 우리 함께 감사하네.

일찍이 신라 유리왕 때에 「회소곡」의 유래도 헌사롭지만, 두레놀이의 풍경은 한가위 달밤의 민족적 즐거움의 극치를 이룬다.

초승달과 가리웠던 반달이 합해 한가위 온달을 이루듯이, 이렇게 내년 추석명절에는 헤어졌던 조국도 통일을 이루어야지. 그리하여 8·15는 영원한 민족의 명일이 되게 하고, 이를 기념하여 달력법도 아주 음력으로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가위는 또한 새로운 시가 있는 풍경으로 장식되리라.